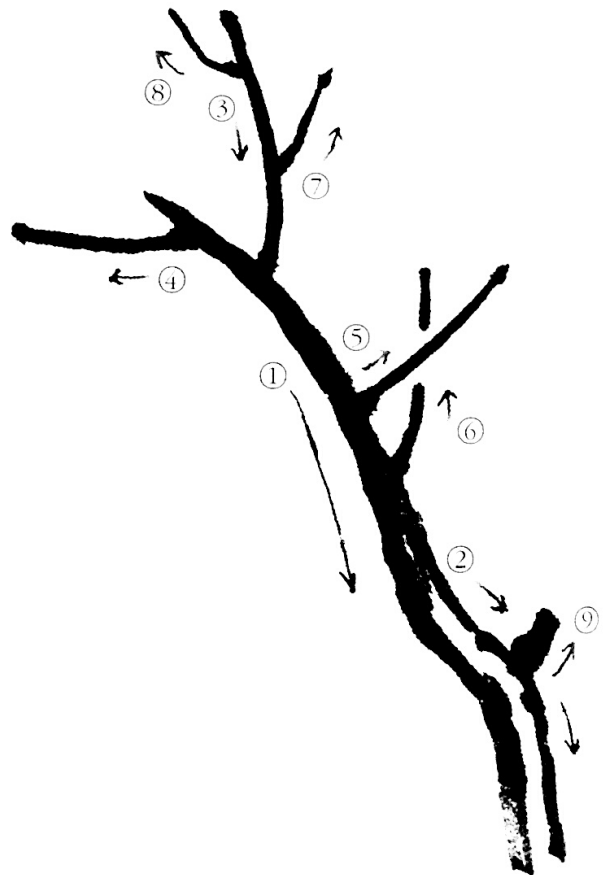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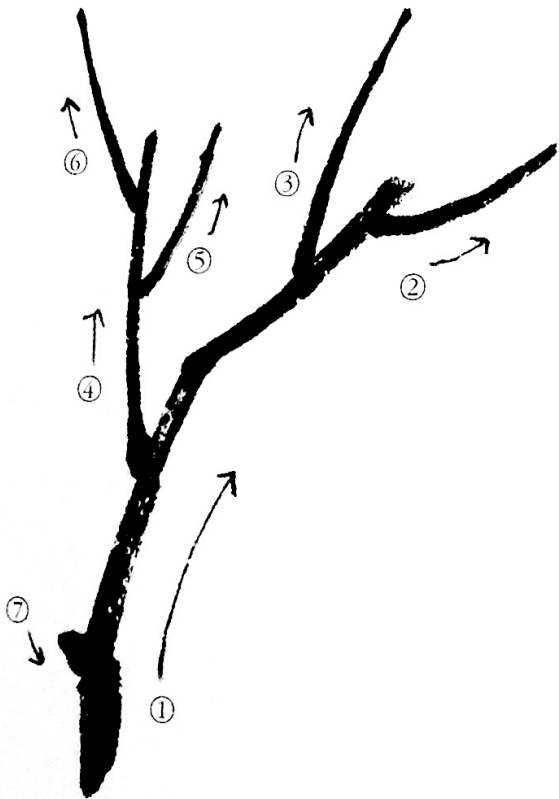


• 가지의 운필요령



2 줄기 그리기(樹幹描法)

나무의 줄기를 그리는 데는 구륵법(鈎勒法=自描法)과 몰골법(沒骨法)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.

줄기를 그리는 데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그어 내리되 위는 좁게 아래는 좀 넓게 그린다. 초보자는 필(筆)의 순서와 방향을 예시한 그림을 보고 참고하여 그리되 숙달이 되었을 경우는 자유롭게 그려도 된다. 또 적절한 곳에는 태점(苔點)를 부

가해야 한다.
줄기를 그리기
오른쪽을 향했
는데 오른쪽으
적게 그린다. 또
각해서 그리면

• 구륵법(鈎勒(白描)法)



③ 나무 그리기(樹木描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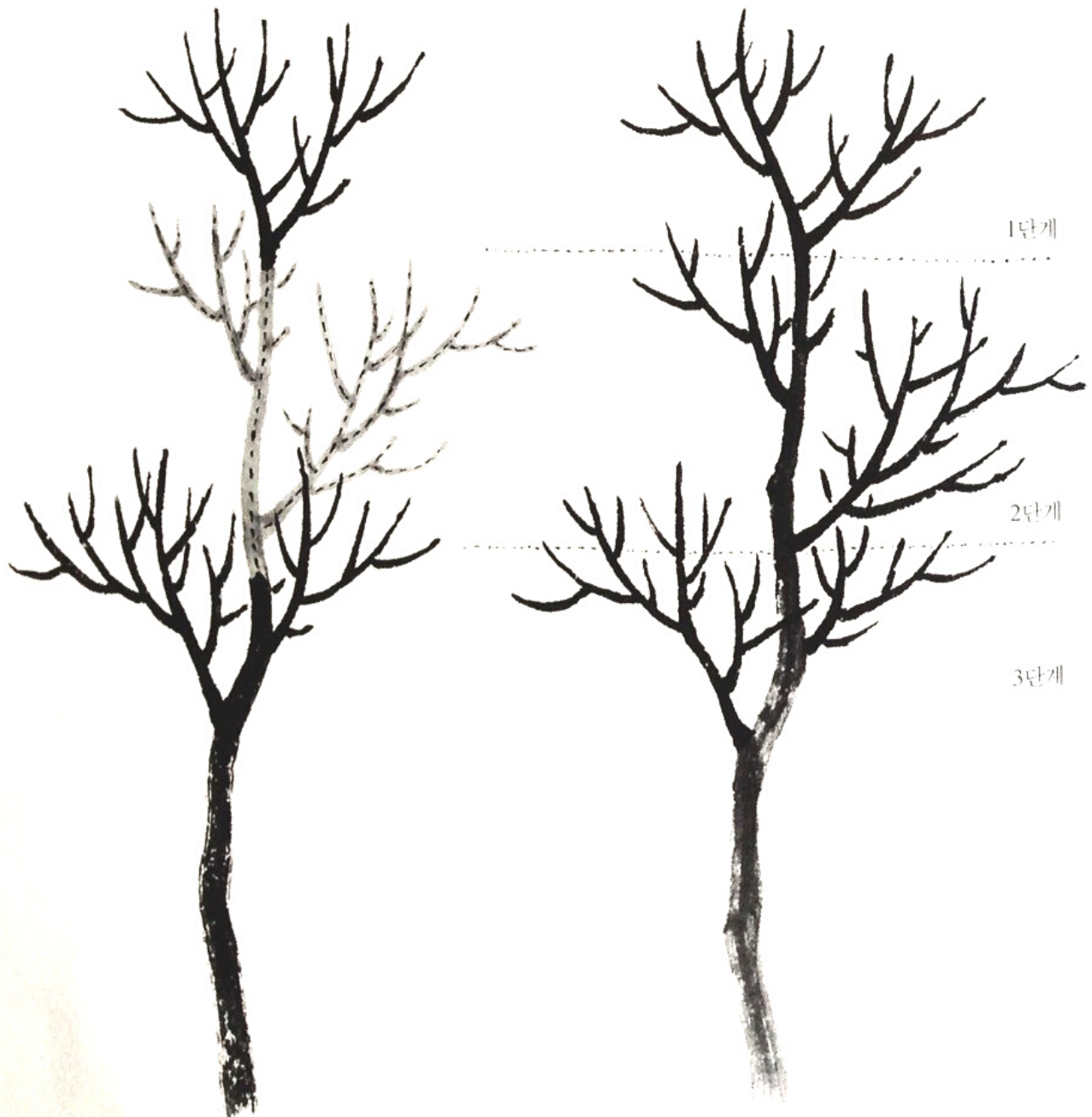
(1) 삼단(三段)으로 그리기는 가지와 줄기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옮겨가며 그린다. 이것은 구름법으로 그릴 때에 편리하다(근경의 나무).

(2) 줄기를 먼저 그리고 주된 가지(主枝)를 그린 다음 잔가지를 그리는 방식, 즉 선간후지법(先幹後枝法)이다. 이 방법

은 주로 물감법으로 그리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그려도 된다(중경 또는 원경의 나무).

(3)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는데 있어서도 가지의 배합은 سنگ과 뻣뻣함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려야 한다.

■ 구름법으로 그릴 경우 잔가지만은 물감선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자.



• 삼단법으로 그리기

• 선간후지법(先幹後枝法)의 예



물골법(沒骨法)

• 삼단구륵법(三段鉤勒法)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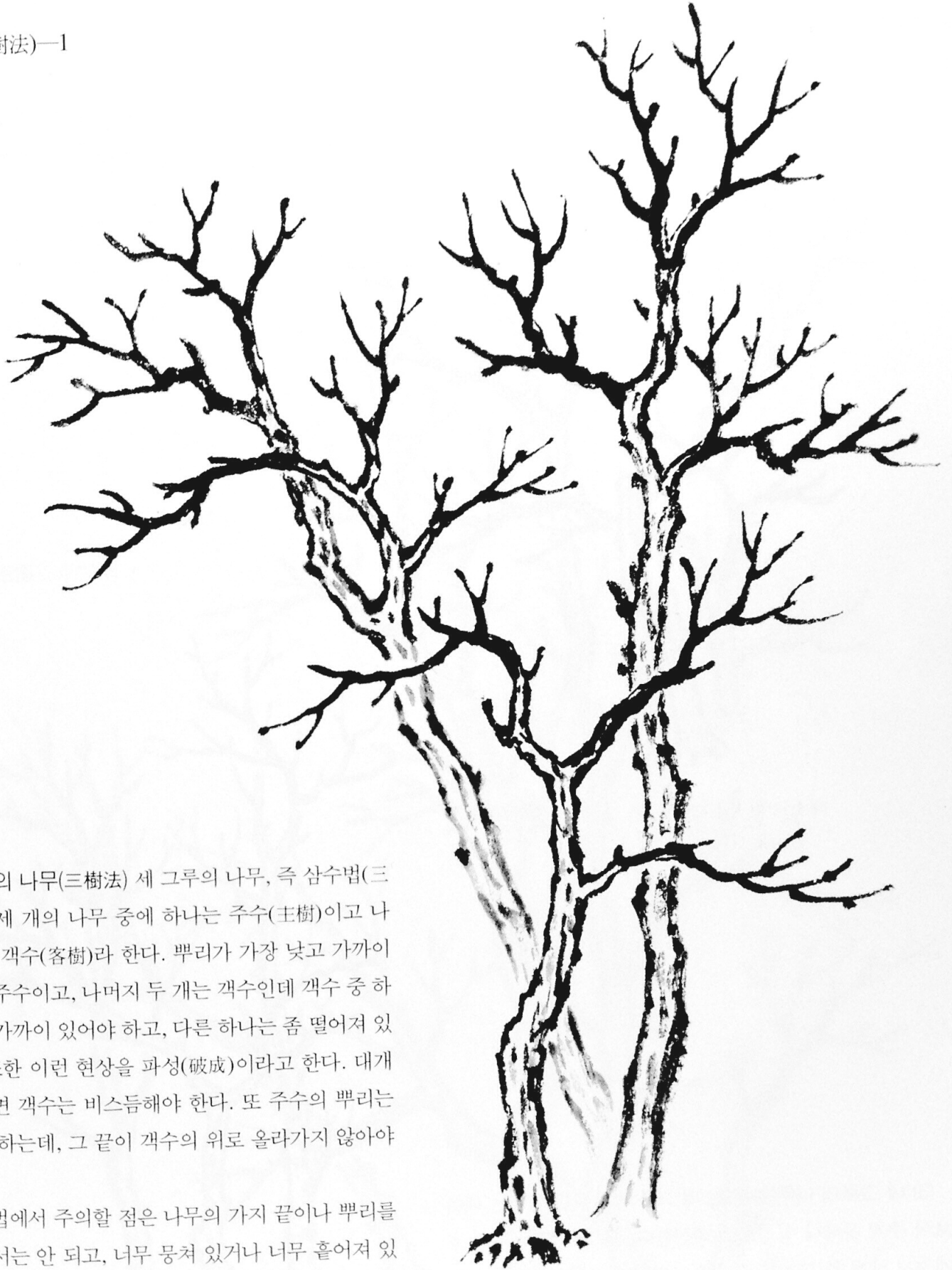


구륵법(鉤勒法)

줄기와 가지를 먼저 그린 다음에 잎을 그리는 방법과는 달리, 잎을 먼저 그린 다음에 가지와 줄기를 그리는 방법이다. 앞의 나무는 농묵으로, 뒤의 나무는 담묵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할 수도 있다.



• 삼수법(三樹法) 一



(2) 세 그루의 나무(三樹法) 세 그루의 나무, 즉 삼수법(三樹法)에서는 세 개의 나무 중에 하나는 주수(主樹)이고 나머지 두 개를 객수(客樹)라 한다. 뿌리가 가장 낮고 가까이 있는 나무는 주수이고, 나머지 두 개는 객수인데 객수 중 하나는 주수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, 다른 하나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. 또한 이런 현상을 파성(破成)이라고 한다. 대개 주수가 곧으면 객수는 비스듬해야 한다. 또 주수의 뿌리는 밑에 있어야 하는데, 그 끝이 객수의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.

특히 삼수법에서 주의할 점은 나무의 가지 끝이나 뿌리를 나란히 그려서는 안 되고, 너무 뭉쳐 있거나 너무 흩어져 있어도 안 된다. 그러기에 나무는 반드시 좌·우와 높·낮음의

교형(交形)